

오스카 수상자들, 아시안 시상자 '패싱' 논란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주도한 천재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전기 영화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가 올해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음악상 등 7개 상을 휩쓴 가운데 남우주연상을 받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가여운 것들'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에마 스톤이 '아시아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펜하이머'에서 스트로스를 연기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다우니 주니어는 생애 첫 오스카를 품에 안기 위해 시상대로 올라섰으나 여러 시상자 가운데 지난해 남우조연상 수상자 키 호이 칸에게는 눈인사도 없이 트로피만 가져갔다.

베트남 출신의 칸은 다우니의 팔을 살짝 잡았으나 다우니 주니어는 함께 시상자로 나선 다른 백인 동료 배우들에게도 공장 향해 주먹 인사를 내졌다.

'가여운 것들'에서 여자 프랑켄슈타인을 연기한 에마 스톤도 여우주연상에 호명된 후 시상대에 올랐으나 시



▲ 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왼쪽)가 키 호이 칸을 지나치고 있다. ② 에마 스톤(오른쪽)이 케니퍼 로렌스에게서 트로피를 전달받고 있다. 가운데는 양쯔충, 사진=유튜브 캡처

상자 중 작년 여우주연상 수상자 양쯔충(양자경)과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스톤은 말레이시아 출신 양쯔충이 건네주려던 트로피를 받다 말고 옆에 있던 백인 동료 배우 케니퍼 로렌스 쪽으로 향했다. 로렌스는 양쯔충과 스톤의 손에 들려 있던 트로피를 끌어와 스톤의 가슴에 안겨준 뒤 포옹했다. 이때 바로 옆에 있던 배우 셸리 필드가 그러면 안 된

다는 듯이 로렌스의 팔과 옷을 잡아끄는 모습도 포착됐다.

두 백인 스타의 이런 모습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아시안 무시', '아시안 패싱',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면서 논란이 됐다.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상 시상에는 해당 부문의 전년도 수상자를 포함한 배우 2명이 해왔는데 올해는 역대 수상자 5명이 함께 시상자로 나섰다. 시상자와 수상자는 트로피를 주고받으며 악수나 포옹을 하는 것이 관례다. 그럼에도 다우니 주니어와 스톤은 여러 시상자 가운데에도 직전 연도 수상자인 아시아계 두 배우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영어를 쓰는 일부 이용자들은 다우니 주니어의 수상 영상을 게시하면서 "왜 저렇게 키 호이 칸을 무시했나?", "오스카 트로피를 서빙하는 웨이터 취급을 한다", "로다주의 순간이지만 키 호이의 순간이기도 하다" 등의 지적을 했다. 스톤과 로렌스에 대해서도 "백인 여성이 백인 여성에게 오스카를 수여해야 했나", "원래 작년 수상자가 올해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주는 게 맞는데 무례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이선균 '추모 영상'

아카데미가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한국 배우 고이선균을 추모했다.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기리는 추모 공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선균도 영상에 등장했다.

이날 추모 영상 속 이선균은 얼굴 가득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에게 아카데미의 영광을 안겨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었다. 이선균은 2020년 영화 '기생충'으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했다. 당시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관왕을 달성했다.



▲ 배우 고 이선균이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추모 공연에 영상으로 등장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이선균 외에도 미국 드라마 '프렌즈'의 켈들러 빙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매튜 페리,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꼽히는 류이치 사카모토 등 최근 고인이 된 영화인들이 추모 영상에 담겼다.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에는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그의 아들 마테오 보첼리가 무대에 올라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를 불러 분위기를 숙원하게 했다.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그는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